

1920년대 목격과 미행의 담론화

박 숙 자*

1. 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의미
2. 과잉된, 그래서 부적절한 - 나도향의 「뽕」
3. 결핍된, 그래서 부적절한
-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
4. 타자의 구획화와 감시의 시선

* 서강대 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1920년대 들면서 흥미하기 시작한 미행 목격담이 근대적 포즈인 동시에 여성을 타자화하는 기제임을 밝히는 데 있다. 20년대 잡지와 소설에서 미행과 목격에 대한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 근간에 근대적인 시각적 인식의 우월성과 사실적인 취재를 통한 공론화의 명분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미행과 목격담이 신여성과 여성의 몸을 소재로 할 때, 여성의 몸은 부정적인 몸으로 가치평가되면서, 작가의 남성적인 환상은 객관적인 장치를 통해 가려진다. 남성인물이 목격한 것은 여성인물의 문란한 성관계나 의외의 성관념인데, 문제는 남성인물이 본 것이 사실이 아닌 남성인물의 성적환상을 통해 재구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남성인물은 여성의 몸을 성적욕망이 가득한 몸으로 파악하고, '내것'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데로 흘러가면 '과잉'되었다고 하고, 거부로 일관하면 '결핍'으로 가치평하한다. 전자의 예로 나도향의 「뽕」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를 들 수 있다. 이 소설들을 통해 볼 때 목격은 사실에 기초하는 근대적 인식의 기제라기보다 시선의 주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구성해낸 장치로써 사실적 인식이라는 포즈로 주체와 타자를 구획짓는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심어 : 목격, 미행, 시선, 성적 환상

1. 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의미

우리나라 속담을 살펴보면 소경에 관한 속담¹⁾이 많다. 다른 장애에 관해서는 굳이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소경에 관해서는 유독 비아냥거린다. 예를 들어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나 ‘소경 문고리 잡기’와 같은 속담 등이 그 예인데, 이 속담들에서 소경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 쓰인다. 그런데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소경’이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말이 아니라, 비교적 근대와 가까운 시기에 나타난 단어인 듯 보인다. 장님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심청전」의 경우 심봉사나 심맹인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소경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경이라는 언급이 조선말기나 근대 초기부터 쓰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헌으로 1905년 「대한매일신보」²⁾에 실려있는 ‘소경과 안증뱅이의 대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때 ‘소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새 질서에 몽매한 정신적 무지까지 함의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 ‘소경’이라는 표현이 근대적 질서의 도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보게 한다. 현재적인 맥락에서도, ‘소경’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³⁾, 기독교 성서가 근대와 가까운 시기에 유입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각적 인식이 인지능력과 연결되는 근대는 ‘보는 것’의 의미가 중요하

-
- 1) 소경에 관한 속담으로는 ‘소경 단청 구경’ ‘소경 문고리 잡기’ ‘소경이 개천을 나무란다’ ‘소경이 저 죽을 날을 모른다’ 등이 있다.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에서 소경은 맹인이라기보다 점쟁이의 의미로 쓰인 듯 보이나, 그럼에도 ‘소경’이 쓰인 여러 속담들에게 한결같이 소경이 ‘알지 못’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소경과 안증뱅이의 대화’, 대한매일신보(1905.11.17).
 - 3) 인터넷 검색에서 ‘소경’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대개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소경’에 대한 비유가 대부분이다. 이는 기독교 성서에서 맹인을 ‘소경’이라 번역하며, 그 의미까지 확대해서 쓴 ‘소경’의 기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게 부각되는 시대이다. 실제로, 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사생활과 내밀한 혹은 미세한 영역들이 카메라와 망원경을 통해 보여지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면서 시각을 통한 인지능력은 우월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보았다'고 고백하면 이것은 사실 인증의 역할을 한다.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으며, 보는 것이 아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회의적인 물음을 던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본 것'이 모두 사실인가 하는 점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임스 힐만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보며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의하자면 보는 행위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기 위한 의지가 들어간 것이고 그렇다면, 본다는 것에는 보는 이의 의지와 믿음 혹은 가치같은 요소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에 기대면 '본 것이 사실이다'라는 명제는 제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본다'는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보는 것에는 보는 자의 의지와 욕망 그리고 믿음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실을 보았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같은 목격이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목격을 고백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이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본 사실'에 사실성을 전제하기보다 '보는 자'의 시선에 내재한 욕망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본 사실'이 주체의 욕망이 투사된 허구적 산물은 아닌지 물을 것이며, 이같은 목격에 대한 고백을 통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되짚어 볼 것이다. 대상작품은 모두 1920년대 작품으로 시선의 우월성이 작품의 주제 형상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기 여러 소설들에서 목격담은 소설적 재료로 자주 차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인물의 사생활을 목격의 예로 증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의 사생활을 미행하거나 엿보고 이를 통해 여성의 성(性)과 몸에 대한 인식을 공론화하는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엿보기를 목적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취미교양잡지로 꼽히는 『별건곤』만 보더라도, 미행과 목격을 형식적 특성으로 하는 글들이 많다⁴⁾. 사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재의 자세일 수도 있고, 탐정소설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여성에 대한 미행이 많다는 사실이고 미행과 목격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결론을 보강하는 근거라는 점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미행과 목격이 귀납적 인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역적으로 여성을 몸을 재구성하는 근대적 포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1920년대에 이같은 포즈가 대거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 위주의 근대 인식이 형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담항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미행과 목격은 취재의 태도로 부각된다. 즉 적절한 사실의 근거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미행과 목격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행하고 엿보는 시선에 여성의 몸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것

4) 일례로 1927년 『별건곤』의 특집 기사 중에 하나로 「여학생 유인단 본굴 탐색기」(1927.3)기사가 실린다. 글의 목적은 여학생들이 자유연애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불량한지 보여주려는 것인데, 그 형식이 미행과 목격이다. “‘설마’ ‘설마’ 하고 있는 동안 나어린처녀 자신은 무엇을 두고 무엇을 배호고 무엇을 사 괴여 엿던 길을 갖고 있는지 향간의 사람들은 역역히 알고 있는 것이다…신시대 안해의 어머니일 여학생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작고 뒤니여 더럽혀지고 또 타락된다 하면 엿지 될 것이나…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렵고 큰 문제는 업슬 것이다…나는 이 기회에 그들의 비밀한 유인 수단의 일례라도 적발 공개하여 써 세상의 만흔 여학생들의 자경자계를 바라는 동시에 학교당국과 일반가정에 예고함이 있스려 하는 것이니”(79쪽)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기자 스스로도 “다 불량여학생으로 보히고 젊은 남녀의 쪽덕어리며 지나가는 것이 대개 그 따위 축으로 보혔섯으니”(78쪽)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미행이 사실은 결론을 전제한 근거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기사 뿐만 아니라 1927년 『별건곤』 4월호에도 「평신도의 수기」라는 미행 목격기 형식의 글이 실린다. 길거리를 오가며 미행 목격한 것을 나열한 글인데, 예를 들어 종교계에 명망있는 유부남이 유부녀와 사귀며 이혼을 하려다가 본부인한테 당한 이야기, 유학 다녀 온 처녀를 좋아해서 영어를 배우는 는 못생긴 목사 이야기 등 지배계층의 위선을 폭로하는 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글이 미행과 목격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거리라는 것이다.

이고, 성적주체로 부상하는 여성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시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나도향의 「뽕」과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이다. 이 두 작품 모두 남성의, 혹은 남성적인 시선이 작품의 의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성의 시선을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아, 두 작품 모두 여성인물의 성격만 전경화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목격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이전에 목격이 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보여진 대상뿐만 아니라 보는자의 시선에 내재한 욕망이 드러난다면 작품의 면모가 좀더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다.

2. 과잉된, 그래서 부적절한 - 나도향의 「뽕」

한국문화 안에서 ‘뽕’은 야한 작품으로 코드화된 지 오래이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영화지만, 소설 속 안협집이 그 실마리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남편이 있음에도 자기 집으로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고, 더욱이 다른 남자에 의해 겁탈되는 여성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성을 선택해서 성행위를 하는 여성은 1920년대 재현 안에서 이채를 띠기 때문이다⁵⁾. 즉 이 작품에서 안협집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묘

5) 이같은 논의를 펼치는 논자로 박현호를 들 수 있다.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깊은샘, 2000))라는 글에서 안협집에 대해 ‘우리 소설사에서 만나보기 힘든’ ‘성관계에 대한 매우 근대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로 얘기한다.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진행된 나도향 논의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나도향의 작품 세계가 낭만주의이나(이인복, 『현대소설과 상징의 기능』(민음사, 1976)) 사실주의이나(조연현, 『한국 현대문학사』(인간사, 1968)) 하는 식의 공전된 논의에서 나아가 나도향을 ‘성욕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한 작가로 평가하며 성욕과 사랑이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밝히기 때문이다. 다만 「뽕」을 분석하면서 안협집의 ‘성적능동성’과 ‘주체의 각성’ 정도에 집중하고 있어서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어려우며,

사6)되고 있으며, 작품의 제목인 ‘뽕’은 성적욕망이 무분별하게 발산되는 공간으로 의미화되었다. 그런데 이 의미화의 중심에 삼돌이라는 인물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듯하다. 뽕밭을 야한 공간으로, 여성의 성욕이 넘쳐 흐르는 공간으로 증언하고 소문낸 인물이 삼돌이이기 때문이다.

삼돌이란 놈은 멀리서 정경만 살피다가 안협집을 뽕지기가 데리고 가는 것을 보더니 두 눈에서 쌍심지가 돋았다. “애 이놈이 호랑이 삼돌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나 대관절 어떻게 할 셈이나. 이 놈 안협집만 건드려 보아라. 정강마루를 두 토막에다 내놔네니 오늘밤에는 내것이던 걸 그랬지. 어디 좀 가까이 좀 가 볼까” 이제는 단판씨름이라 주먹이 시비판단을 하는 때이다. 다시 철망을 넘어서 들어갔다. 들어가서는 이곳저곳 귀를 기울이며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돌아다녀 보았다. 저쪽에서 인기척이 웅얼웅얼하더니 아무 말이 없다. 한 두서너 시간 그 넓은 뽕밭을 헤매고 또 거기 닿은 과목밭 채마전 나중에는 그 옆 원두막까지 가 보았다. 놈이 뽕나무밭 가운데 부풀 덩불을 보지 못한 까닭이다[...].그날 새벽에 안협집은 무사히 왔다. 머리에 지푸라기가 묻고 몸매무새가 말이 아니다. “에그 어떻게 왔어! 응?” 주인은 눈에 눈물이 괴어서 어루만진다. “무얼 어떻게 와요? 밤새도록 놔두고 승강이를 하다가 그대로 왔지” “그대로 놓아 주던가” “놓아주지 않고 붙잡아 두면 어찌될 테야”(p.2747)

위의 인용에서처럼 뽕밭에서 안협집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본 사람은

더욱이 ‘안협집의 각성이 충분치 않아서’ ‘일상이 지속’된다는 주장까지 펼쳐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오히려 안협집이 일상의 감각을 잃지 않으며 성적 주체로 조명되었기 때문에 더 리얼리티가 있는 듯 보인다. 박헌호가 안협집의 성적 능동성이 갖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면, 본고는 안협집에 대한 의미화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 6) 이와 같은 견해를 펼친 논자로, ‘성적으로 몹시 음탕한 안협집이라는 여인의 생애를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윤홍로(『현대작가론』(선명문화사, 1975))와 안협집을 ‘해뜨게 정조를 파는 여인’(『어문연구』 24집, 1993)이라고 분석한 한상각 등이 있다.
- 7) 『뽕』은 1925년 「개벽」 64호에 실렸으나, 본고에서는 편 의상 나도향 전집(『나도향 전집 上』(집문당, 1988))을 텍스트로 삼았다. 표시된 페이지는 이 전집에 의한다.

아무도 없다. 삼돌이는 ‘두서너 시간’ 동안이나 뽕밭과 그 근방을 헤매고 다니며 안협집을 찾았으나 안협집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삼돌이는 뽕지기가 안협집을 분명히 “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정하게 된 데에는 삼돌이가 어떤 이유로 안협집과 함께 뽕밭에 갔는지를 알면 될 듯하다. 사실 삼돌이가 안협집을 도와 뽕밭에 간 것은 “안협집을 쫓 궁리” 때문이다. 인용에서 ‘뽕을 따면서도 안협집을 쫓 궁리를 하지마는 안협집은 이것저것을 잊어버리고 손에 다치는 대로 뽕을 따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삼돌이는 이 날 뽕밭에서 안협집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물론 이는 안협집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협집은 ‘밤중에 무인지경에를 같이 가다니 그것이 딱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삼돌이와의 동행 자체를 꺼렸을 정도다. 그러나 삼돌이는 밤중에 안협집과 같이 뽕밭에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때가 왔”다는 생각에 “춤이 저절로 추어”졌을 정도다. 이렇게 뽕밭을 남녀의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긴 것은 삼돌이의 생각이다. 삼돌이에게 뽕밭은 안협집과의 정사로서만 의미화된다. 그래서 안협집이 뽕지기에 잡혀 사라졌을 때 다른 생각 대신 “이놈 안협집만 건드려 보아라. 정강 마루를 두 토막에다 내늘테니 오늘밤에는 내것이던 걸 그랬지”라고 중얼거린다. 삼돌이의 머리 속에서 뽕밭은 남녀의 성욕이 구분별하게 발산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안협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내 뽕지기가 안협집의 몸을 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는데, 다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는 내것”일 게 분명했던 안협집이 뽕지기의 몫으로 넘어갈까 걱정하는 것이다. 뭉 눈에 뭉만 보이는 겪으로 안협집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뽕밭을 그러한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긴 것은 삼돌이의 욕망이다. 그러므로, ‘뽕밭’을 남녀 간의 정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고한 것은 삼돌이이며, “뽕따러” 가는 것을 야한 것으로 의미화한 최초의 인물도 삼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의 서술자도 여러 정황상 안협집이 뽕밭에서 그냥 풀려났

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한다. 즉 죄를 면하기 위해 몸을 팔았을지도 모른다고 짐작은 한다. 그러나 이것과 안협집이 다른 재미를 위해 몸을 팔았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삼돌이는 “뽕지기놈을 보고 싶지 않습나” 하며 뽕밭에서의 사건을 안협집의 ‘헤픈 정조’나 ‘무분별한 성욕’ 때문인 것으로, 사건의 원인을 안협집의 뿔으로 몰고 간다. 같이 도둑질하다가 자신은 도망가고 안협집만 걸려 ‘승강이’를 하다가 왔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협집에게 죄를 묻는 것이다. 더욱이 ‘뽕이나 또 따라 가소’라고 안협집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온 동리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협집에게 ‘뽕밭’은 성적쾌락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협집에게 뽕밭은 경제적 현실일 뿐이다. 삼돌이가 머슴으로 있는 집의 안주인과 동업으로 누에를 키우는데 뽕이 다 떨어져 뽕을 사야 했다. 그런데 뽕값이 비싸서 사기 어려워지자 안협집보러 뽕을 도둑질해 오라고 안주인이 종용한다. 이웃집 뽕밭에 갈 것을 결정한 것은 안협집이 아니라 안주인이다. 안협집은 뽕을 샀으면 하나, 돈 들어가는 것을 전전긍긍하는 안주인이 안협집을 꼬드긴 것이다. 뽕밭은 안협집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구차한 현실을 메꾸어 줄 이웃집 밭이다. 또한 뽕밭은 안협집에게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여성의 구차한 경제적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뽕밭은 안협집의 헤픈 정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소문나고, 이 소문의 진위성은 밝혀지지 않는다. 더욱이 삼돌이는 뽕밭에서의 사건을 확대하고 위협의 증거로 삼으면서 기정사실화해 소문낸다. 삼돌이는 자기가 본 것이라고 단정하지만, 그가 본 것은 없다. 다만 추정할 뿐이며 더욱이 이 추정이 자기 욕망에서 구성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삼돌이가 안협집을 헐박까지 해가며 성적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협집이 삼돌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냥년’이라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왜 안협집에 집착하는 것일까.

홍 계집년이 배때가 벗어나 말쑥한 서방님만 이르더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썩소리 못하고 한 번 당해야 할 걸 건방진 년.(p.268)

‘허허 실상 지금 세상에는 선부른 불알보다는 계집편이 훨씬 나니라’ 하고 붓짐을 짊어지고 가 버린다…… 이렇게 이삼년을 지내고 난 어떤 가을에 삼돌이란 놈이 그 뒷집 머슴으로 왔는데 놈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벌먹던 놈인지는 모르나 논밭 때 콧소리나마 아리랑 타령 마디나 똑똑히 하고 술잔이나 먹을 줄 알며 동료들 가운데 나서면 제법 구변이나 있는 듯이 떠들어 쫓히는 것이 그럴 듯하고, 게다가 힘이 세어서 송아지 한 마리 옆에 끼고 개천 뛰기는 밥먹듯이 하는 까닭에 동리에서는 호랑이 삼돌이로 이름이 높다.(p.268)

삼돌이가 보기에 안협집은 “건방”지다. 그 이유는 ‘사내다운’ 삼돌이를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삼돌이는 동리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힘이 센 남자로 통한다. “호랑이 삼돌이”라고 불릴만큼 힘도 세고, 더욱이 사내로서의 자존심을 부릴 정도로 제법 구변도 있으며 술잔이나 먹을 줄 아는 걸로 유명하다. 그것뿐이 아니다. 삼돌이는 동네여자를 모두 건들여 볼 정도로 왕성한 성욕을 자랑한다. 그런데 삼돌이가 건들여 보지 않은 동네 여자는 안협집 뿐이다. 삼돌이가 생각하기에 안협집은 “동리에서 돈 푼이나 있고 얹전한 젊은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씩 관계를 가질 정도라고 소문난 여사인데, 유독 자신에게만 인색하다. 삼돌이는 그 이유를 자신이 “말쑥한 청년”이 아닌 “머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삼돌이가 안협집을 겁탈하는 행위에는 안협집의 몸의 유혹에 끌리는 것도 있지만 안협집을 징치(懲治)하려는 의도가 한 편에 있다.

「뽕」은 성욕이 왕성한 여성과 남성 간의 쟁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싸움에서 여성이 쥐고 있는 때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성의 선택권이며,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맘에 드는 서방질’을 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이 쥐고 있는 때는 지속적인 응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소문내기이다. 남성은 여성의 몸이 어떠한지 한다는 세간에 퍼진 인식을 이용해서, 염탐을 사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을 위협한다.

여성의 성욕이 무분별하다고, 그래서 “화냥년”이라고 의미화하는 중심에는 여성의 성욕을 엿보는 남성의 시선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성욕을 기록하고 분에 넘치는 것인지, 정도에 맞는 것인지 판단한다. 이 판단을 통해 여성을 위협하는데, 위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왕에 여성의 몸이 “내것”이 되었다면, 염탐이나 기록이나 위협은 없었을 것이다. “내것”이 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흘러 넘치면서 나를 유혹하고 내 자존심을 위협하기에 염탐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욕을 과잉된 것으로 쳐다보는 시선 안에는 “내것”이 되지 못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유혹과 그로 인한 징치가 자리잡고 있다.

3. 결핍된, 그래서 부적절한

-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학생 기숙사의 사감은 인구에 회자된 경우가 많다. 한참 성적 호기심이 충만한 사춘기의 여학생을 통제하는 사감은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짓궂은 별명이 따라 붙게 마련이며 때로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게도 된다. 물론 기숙사 사감 뿐 아니라 학생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던 선생님이나 군대의 일명 군기반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학교나 군대를 마치고 그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을 되돌이켜 볼 때, 짓궂은 별명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그 별명이 그 사람들의 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예는 드물다.

여학교의 괴담도 마찬가지다. 학창시절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던 학교의 전설이나 괴담 하나씩이 대개 있게 마련인데, 이 괴담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괴담이 나올 수 있는 학교의 상황적 맥락이나 교육 현실 등을 얘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다. 즉 짓

곳은 별명이나 괴담은 사실성 여부에 관심을 모으는 것보다 그같은 소문이 전달되고 회자될 수 있는 상황적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 본질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소문의 역사』⁸⁾에 의하면 “소문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으며” “관건이 되는 것은 시의성이며” “잠재되어 있던 선입견에서 비롯된 지식을 표현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전한다. 다시말해 소문의 사실 여부를 묻기 보다 소문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이나 잠재된 선입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이다.

그러함에도 괴소문에 신빙성을 부여하고자 하고 이를 서술의 전략으로 삼으면서 목적을 통해 사실화하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이 의문의 한가운데에 「비사감과 러브레터」⁹⁾가 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현진건의 단편으로 비사감이라는 특이한 캐릭터가 소설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는 작품이다. 비사감의 히스테리컬한 면모는 근대문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만큼 창조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소설전체가 비사감의 괴팍한 성격이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탐색하는 이야기인데, 비사감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이 향간에 떠도는 괴소문을 빌려 이를 통해 상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괴소문을 소설의 제재로 끌어들이고 괴소문의 한가운데 비사감이 있음을 얘기한다. 마치 탐정소설처럼 괴소문의 진원지를 밝히고, 범인을 추적해간다. 그리고 목격자들을 통해 비사감이 분명한 범인임을 증거한다. 이로 인해 비사감에 대한 인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는다.¹⁰⁾

8) 한스 J. 노이바우어, 박동자, 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세종서적, 2001), pp.13~21 passim

9) B사감과 러브레터는 조선문단 1925년 2월에 실렸으나, 이 글에서는 현진건 전집 『조선의 얼굴』(문학과비평사, 1988)에 실린 것을 참고하였다.

10) 비사감과 러브레터에 대한 기존논의는 목격자의 시선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진건 연구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인 현길언의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현진건 연구』(태학사, 2000)와 『현진건』(건국대출판부, 1995)에 보면 “한 인간의 사회적 자아 속에 가려져 있었던 진실”이라고 평가한다. 또 이재선은 ‘인간의 표리부동의 이중성을 골격적으로, 반어적으로 체

C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을 하는 B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소군으로 유명하다.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개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슬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웰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술이 적어서 범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 못하고 영성하게 그냥 벗어넘긴 머리꼬리가 뒷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뽀쪽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p.196)

“저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치수리는데 그 음성은 분명 울음의 가락을 띠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소녀가 소곤거렸다.

“아아 미쳤나 보야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리고 있을꾸”

둘째 처녀가 맞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pp.201~202)

위 단락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사감은 “죽은개 투성이 얼굴에” “곰팡나는 굴비를 생각나게 하는” 괴물같은 “오싹한” 여자로 묘사된다. 감정 전이를 되지 않을 만큼 매섭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흉칙하게 그려진다. 그러나 비사감의 방을 엿본 후 정확히 말해 비사

시하는'(『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작품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박상순은 'B사감 내부에 억압되어 있는 절실한 욕망'(『현진건 단편소설 연구』(서강대 석사논문, 1998))을 묘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의들의 공과를 떠나, 연구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목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간의 이중성이나 '사회적 자아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로 일 반화하기에는 B사감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 악의적이며, 소설이 끝난 후 의심의 화살이 인간의 이중성으로 모아지기보다 신여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기 때문이다.

감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후, 비사감은 동정과 연민의 불쌍한 여자로 거듭나게 된다. 학생들은 비사감이 자신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여학생들에게 온 러브레터에 질색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더 간절히 러브레터를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 그리고 비사감의 괴팍한 행동이 러브레터를 얻지 못한 데서 오는 노처녀의 히스테리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한다. “눈물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B사감은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한” 여자로 자리매김 된다. 이 맥락에서 불쌍하다는 것은 남들이 다 갖는 러브레터 한 장 못 받은 B사감의 결핍에 대한 이해이다.

무엇이 결핍되었는가. 그것은 발신인이 분명하지 않는 러브레터이다. 여학생들에게는 흔한 러브레터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을 통해 B사감은 결핍된 여성으로 거듭나고, 기숙사를 지배하는 사실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여학생들의 성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숙사의 B사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사감과 여학생 모두 편지 아래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편지를 통해 의미화되며, 편지가 없을 경우 편지를 욕망해야 한다. 기숙사의 통제권은 러브레터를 단속하며 한창 성적 호기심에 가득한 여학생을 봉제했던 비사감에게서 편지의 발신인으로 이양된다. 기숙사의 통제권은 옮겨지고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비사감은 이해가능한 여성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렇게 비사감을 불쌍한 여자로 이해하는 순간, 비사감이 기숙사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복된다. 때문에 아이러니는 비사감이 불쌍한 여자로 거듭나는 결말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의미의 주체가 바로 편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순간 작동한다.

그러나 이같은 비사감에 대한 전도된 인식의 결과가 단지 비사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짐작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다. 즉, 비사감이 그녀 개인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초점화된 것이 아니라 기

숙사를 통제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초점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이는 여성의 성욕을 단속하고 규율하는 행위가 문제시 된 게 아닐까 하는 가정과 맥을 같이 한다. 비사감의 사적인 방을 몰래 엿보고 이를 사실로 정당화하는 하는 순간, 비사감의 통제행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비사감을 둘러싼 문제에 통제 권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로 하든지 기어이 못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찌니 상학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쑤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설유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p.198)

실제로, 텍스트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술자는 비사감의 기숙사 통제 행위를 문제 삼는다. 교장이나 학생들의 집단 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 폐쇄적인 관리를 하는 그녀를 납득할 수 없어 한다.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라는 말로 비사감의 관리를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반감어린 어조까지 드러낸다. 서술자는 외부적인 간섭이나 남성들의 호출, 혹은 왕래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그런데, 서술자가 반감을 표하는 지점에 성차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러브레터’가 무엇인가. 발신인이 누구 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남성이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여학생에게 전달되는 러브레터라는 것이 낭만적인 말로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편지라면 러브레터는 사적인 편지인 동시에 남성적인 호출의 매개인 것이다. 또, 같은 예로 비사감을 “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다”는 서술자의 서술에서 남성적인 목소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곱팡 술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는 서술도, 그리고 “오싹하고 몹서리쳐진다는” 시선도 남성적인 편

견의 시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의 시선에 성차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감을 목격한 것은 여학생이다. 그렇다면 여학생은 본 것은 무엇인가. 서술자는 이 작품에서 세 명의 여학생을 동원해 몇 본 사실을 분명한 사실로 주장하려 한다. 하지만 엄격한 사감의 미친 듯한 행위를 몰래 엿보면서 그 순간 사감을 붙잡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너무나 작위적이어서 구성의 허점을 드러낸다. 사실, 세 여학생들이 직접 본 것은 한 장면이며(소설에 나와있는 바에 따라), 그것도 “-하는 것 같이” 혹은 “-뿌리치는 듯이”라고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엿보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셋째 처녀는 이 모든 사실을 확정된 사실처럼 여기며 감정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서술자의 서술행위에 셋째 처녀의 감정적 반응이 종속되고 있는 것으로,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실적 사건과 여학생들의 목격담이 소설적 소재로 쓰였을지라도 이같은 소재들이 서술자의 허구적인 서술행위 아래 종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결과 독신주의자인 비사감은 남성들의 편지를 얻지 못해 신음하는 히스테리 환자로 자리매김되고 기숙사를 감시하는 비사감의 시선 위에 또다른 감시의 시선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즉 B사감을 목격한 것은 여학생들이지만, 여학생들의 목격이 남성적인 시술 행위 아래 종속되고 있기 때문에 목격의 의미화 중심에 남성적인 시선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감시의 시선은 다른 문맥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프로이트¹¹⁾에 의하면 “남성이 응시를 통해 여성을 고정시키고, 여성의 육체를 가둠으로써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조사” 하는 등 “남성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되게 하”¹²⁾는 것은 남성이 자신의 거세공포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라

11) 이는 로라멀비가 프로이트를 해석하고 있는 문맥에서 빌려왔다.(신광현, 「시선과 영화」, 『비평』 2002 여름)

12) 수잔헤이워드, 이영기 역, 『영화사전』(한나래, 1997), p.46.

고 한다. 이 논의에 기대어 「B사감과 러브레터」를 보면, B사감을 남성의 시선 안에 가두고 남성에 의해서 의미화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사실은 자신의 무력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남성적인 상징적 질서를 거스르는 B사감을 거세된, 결핍의 존재로 평가절하¹³⁾함으로써 B사감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남성에 의해서만 의미화되는 존재로 대상화시켜, 궁극적으로 여성의 성이 남성에 의해서만 의미화된다는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B사감의 기숙사 관리 행위가 전경화되고 있는 지점은 외부적인 간섭과 남성들의 흘림을 거부하는 단호하고 엄격한 측면으로서 독립적인 여성을 표상한다. 그런데 이같은 측면이 남성들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남성서술자는 반감을 표하며, 오히려 비사감을 결핍된 여성으로 만들고 그녀의 엄격한 측면을 히스테리처럼 다룬다. 즉 비사감이 곁으로는 남성의 관심을 외면하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남성에 의해 의미화되지 않는- 그녀의 사생활을 훑쳐보게 되면 실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발상을 통해 비사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남성들의 흘림을 거부하는 여성을 결핍된 여성으로 사실화함으로써, 남성적인 세계에 안정을 구한다. 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남성주체를 형성하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으로, 허구적 환상을 숨기기 위해 사실성을 보장하는 목격담이 그 형식으로 차용된 것이다.

13) 멀비는 시선 애착증으로 설명하면서, 여성의 결핍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행위도 거론한다. 이는 여성을 탈신비화시켜 죄를 안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벌주거나 구원함으로써 거세된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신광현, 앞의 글, p.81)

4. 타자의 구획화와 감시의 시선

근대 형성기에 주체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타자의 자리 또한 이전고투를 통해 마련된다. 주체정립이 어려워진 식민지 기간동안 남성인물(혹은 서술자)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함으로써 남성의 주체정립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심은 여러 논의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타자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과정상의 문제이다. 여성이 어떻게 남성의 타자로 자리매김되는지, 그 과정에서 주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미행 목적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선 남성인물은 여성을 타자화하기 이전에 여성을 성적매력이 충만한 장소로 여기고, 그 미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이미 여성이 성적 주체성을 획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남성의 미망으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을 단죄하는 방법은, 그녀들을 성적욕망이 가득한 몸으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할까. 무엇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설득력의 원천에 근대를 작동시키는 기제인 '보았다'는 시각의 우월성이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성적욕망을 문제시하는 여러 작품들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여성인물이 등장하고 이 인물들을 목격하는 남성인물이 등장하며, 작품의 리얼리티는 복격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20년대, 사실에 기초한 인식이 근대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목격과 미행은 근대적인 포즈인 동시에 설득을 위한 태도로 자주 차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남성인물들이 보았다는 것은 사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안협집의 경제적 현실이 왜 삼돌이에게는 매춘의 현장쯤으로 발각되고 화냥년으로 매도되는 공간이어야 하는지, 또한 B사감의 사적인 방을 왜 엿보았는지, 그리고 엿본 것은 사실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짚어보았다. 남성들은 시각의 우월성을 이

용해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목격을 통해 여성의 몸은 성적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몸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몸을 부적절한 몸으로 판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욕망하기 전에 그녀또한 또다른 무엇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성의 욕망으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의 간난하고 매정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차하고 매정한 현실을 지우고 그 자리에 성적욕망만 덩그러니 놓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타자에 대한 구획화와 이에 동반한 징벌은 춘향이를 단죄했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 감시의 시선을 통해 단죄될 뿐이다. 이 시선 안에서 여성은 성적 욕망이 가득한 몸으로 파악된다. 현상적으로는 과잉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핍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성'이다. 과잉이나 결핍 모두 남성의 시선에서 파악된 것이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채 다른 데로 흘러가면 과잉된 것이고, '나'에게 흘러들지 않는 거부는 무능력을 상징하는 결핍된 것이다.

이 소설들을 통해 볼 때 목격은 사실에 기초한다기보다 시선의 주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장치로 보인다. 목격을 통해 시선에 내재한 욕망을 표백하고, 욕망이 흘러들여간 장소를 타자화한다. 본고에서는 192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작품들에서 보이는 과잉/결핍의 이분법은 근대 작품에 관통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사실적 인식이라는 포즈로 주체와 타자를 구획짓는 알리바이로서의 목격은 사실로 믿고 싶은 것을 사실화하는 방편이자, 주체와 타자를 이분화하는 포즈이다. 보는자와 보이는자의 욕망의 거래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자의 욕망의 내용을 펼쳐놓는 것 그렇게 여지없이 볼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은 대상을 충분히 타자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별건곤』, 『대한 매일신보』
나도향, 『나도향 전집 上』, 집문당, 1988.
현진건, 『조선의 얼굴』, 문학과비평사, 1988.
곽상순, 『현진건 단편소설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98.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주체의 구성」, 『여성문학연구』 3호, 태학사, 2000.
박현호,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신광현, 「시선과 영화」, 『비평』, 2002 여름.
윤홍로, 『현대작가론』, 선명문화사, 1975.
이인복, 『현대소설과 상징의 기능』, 민음사, 197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이정옥, 「감상주의 연애소설의 상품화전략」, 『여성문학연구』 6호, 태학사, 2001.
조연현, 『한국 현대문학사』, 인간사, 1968.
한상각, 「나도향과 그의 작품 세계」, 『어문연구』 24집, 1993.
현길언,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현진건 연구』, 태학사, 2000.
현길언, 『현진건』, 건국대출판부, 1995.
수잔헤이워드, 『영화사전』, 이영기 역, 한나래, 1997.
한스 J. 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 박동자·황승환 역, 세종서적, 2001.

Abstract

The Discourse of Witness in 1920s

Park, Suk-Ja

This paper is intended to clarify that witness narratives on women in 1920s contribute to "otherize" women. One of the subject matters, which is frequently found in literary works written in 1920s, is that a male character shadows and steals a glance at and witness a female character. As the result of this witness, a female character becomes rated as a negative body. What a male character witnesses is a female character's loose sexual relationship or her exceptional concept of sex. But the problem is that the contents of his witness is not true but reorganized through his sexual fantasy. A male character regards the body of a female character as the body filled with sexual desire. He thinks that her sexual desire is superfluous, if that desire does not belong to him and flows to another man. If a female character continues to refuse him, he concludes that she lacks her sexual desire. By these ratings, a female character rising to be a sexual subject becomes otherized. While the former is exemplified in *Mulberry Leaves* by Na, Do-Hyang, the latter is exemplified in *Dormitory Inspector, B, and Love Letter* by Hyun, Jin-Gun. As illustrated in these two novels, the contents of witness is not a modern means of recognition based on some facts. Rather, it is a mechanism invented by a witnessing male character in order to occupy the place of subject. That is, witness is very likely to be an alibi posing as a factual recognition, which can be used in distinguishing the subject

key words : seeing, witness, following, sexual fantasy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